

29. (가)와 (나)의 글쓴이가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독서의 목적’은?

- ① 당대 사회의 지배 이념을 비판하는 것
- ② 휴식을 취하면서 정서적 안정이나 즐거움을 얻는 것
- 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 ④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 ⑤ 글속에 담긴 의미를 깨우쳐 세상의 이치에 통하게 되는 것

30. (가), (나)를 읽고 ‘독서’에 대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독서를 통해 ‘앓과 깨달음’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①
- 독서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며, 생각한 것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②
- 온 마음을 쏟아 독서에 집중해야 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③
- 독서할 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하며, 깨달은 바가 있으면 실천해야 한다. ④
- 독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서 상황에 맞게 읽을 책을 선정해야 한다. 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옛날 어느 가난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 옷만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된다.

만형 우리들이 가 버리면 여기 남은 형제자매 그 누가 보살펴 주겠소?

노파·남자3 그건 염려 말아. 우리가 정성껏 보살펴 주겠네.

둘째 어린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몰라 못 간다니.....

둘째 우리 모친 어느 곳에 계실는지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살았으면 이승 있겠고 죽었으면 저승 있겠지.

막내 어린 당장 떠나겠소. 떠날 때가 분명하듯 돌아올 때 분명하게 기약이나 정합시다. 십 년 기약 어떻겠소?

노파·남자3 (치마에 모은 노잣돈을 막내에게 준다.) 십 년 기약 그제 좋군! 자네들이 그때까지 꼭 찾아서 데려오게.

만형 막내 네가 바보구나! 노잣돈을 받았으니 안 떠날 수 있겠느냐!

둘째 (만형을 붙잡고 탄식하며) 차마 못갈 이승 길을, 몰라 못갈 저승길을 울며불며 가야겠네!

막내 (일곱 자식들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몸 성히들 잘 계시오. 우리 어머니 꼭 찾아서 모셔올 테요.

만누나 장하구나, 우리 막내! 십 년 기한 차기 전에 꼭 찾아서 모셔 오너라!

(열 자식들이 세 자식들과 일곱 자식들로 나뉘 이별한다. 만형, 둘째, 막내는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구경꾼들도 퇴장한다. 일곱 자식들은 무대 후면으로 물러간다. 만누나는 무대 가운데서 세 자식들이 나간 방향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 이별의 서러움이 역력한 모습이다. 만누나,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어 관객석 쪽으로 다가와서 말한다.)

만누나 나는 자꾸만 손을 흔들었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막내가 멀리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건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죠. 가난한 어린 시절, 나의 슬픈 기억 속에는, 가족과의 이별이 있어요. 노오란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던 황톳길, 그 바짝바짝 메마른 황톳길을 오빠들이 떠나가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만형 울지 말고 십 년만 기다려라! 그럼 성공해서 돌아올게!
만누나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틈을 노려서, 도망치듯이 몰래 집을 떠나가는 오빠들..... 난 훌쩍훌쩍 울면서 손목이 떨어져라 떨어져라 흔들었죠.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무대 가운데로 가서 세 자식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하여 외친다.) 가는 듯이 돌아들 오소! 기다리는 마음, 미치고 달치겠네!

(중략)

만형 여기가 세 갈래 길이구나. 그동안엔 우리 함께 다녔으나, 지금부터는 제각기 길을 택해 가기로 하자.

둘째 (표지판을 소리 내어 읽는다.) 서울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산으로 가는 길..... 형님은 어느 길로 가시려오?

만형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해봤지만, 우리 어머니는 도망간 게 여실하다. 열 명 자식 키우느라 그 고생이 막심한데 평생 수절하기 또 얼마나 힘들었겠니? 답답한 맘 풀어보려 서울 구경 갔을 테니, 난 이쪽 서울로 가는 길을 택하겠다.

둘째 나도 별의별 생각 다 했소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는 죽은 것 같소. 혹시나 바다에는 용궁 있어 저승과 통한다 하니,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택할 테요.

만형 막내 너는 어쩔 거냐?

막내 나도 여러 생각 다 했소만, 우리 어머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소. 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승도 살펴보고 저승도 살펴볼 테요.

만형 네 생각이 그리하면 저쪽 산으로 가는 길이 네 길이다. 이제 각자 길로 가기 전에 노잣돈을 나눠 갖자. (노잣돈을 삼등분으로 나눈 다음, 자기 몫에서 조금 덜어 막내에게 준다.) 막내야, 너는 어리니 노잣돈을 더 가져라.

막내 아니요, 형님. (자기 몫에서 덜어내 만형과 둘째에게 준다.) 나는 젊으니 형님들이 더 가지시오.

둘째 (만형과 막내에게 자기 몫을 덜어주며) 형님도 더 가지시고, 막내도 더 가져라.

만형 우애 깊은 우리 형제, 여기에서 헤어지다니..... 십 년 기한 잊지 말고 다시 만나자!

둘째 형님이나 잊지 마오! 막내야, 너도 잊지 마라!

만형 (길을 나눠 떠나는 둘째와 막내에게 손을 흔들며 전송하며, 목이 멘 소리로) 너희들, 어머니를 꼭 찾아 모셔 오너라!

(만형, 관객석으로 다가와서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

만형 어머니를 찾는다니, 그게 뭘니까? 사람이란 그 누구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으며,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찾는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꿈은 화가였습니다. 오색 물감으로 하늘의 태양과 구름, 땅의 언덕과 나무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었지요. 그런데 중학교 땐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질병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어요. 고등학생 시절엔 장군보다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 졸업할 무렵 그 모든 것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술가가 되려는 욕구, 군인이 되려는 욕구, 정치가가 되려는 욕구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입으며) 어머니를 찾기는 찾아야 할 텐데..... (이정표에다가 가서 방향판을 바라본다.) 서울로 가는 길, 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 이강백 원작·김아라 연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

31.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세 자식들'은 서로 간의 우애가 돈독하다.
- ② '세 자식들'은 기꺼이 어머니를 찾는 길을 나선다.
- ③ '세 자식들'은 십 년 기약을 하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 ④ '세 자식들'은 세 갈래 길에서 각자가 선택한 길로 떠난다.
- ⑤ '세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방을 두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무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		관객석
A	B	C

A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B에서는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A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의 일부가 B에서 언급되면서 두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이 '옷'을 입고 벗음은 A와 B의 상호 전환을 알리는 장치이다.
- ③ B에서 등장인물들은 C의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말하는 위치를 바꾸고 있다.
- ④ C의 관객들은 A와 B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극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 ⑤ B에서는 A에서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C의 관객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33. ㉠, ㉡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 찾기'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세 갈래 길'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의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함께 다니던 형제들의 이별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서울', '바다', '산'으로 가는 길은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떠나는 인생의 길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욕망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춘풍의 처 하는 말이,
 “부모 조업 누만금(累萬金)을 주색(酒色)으로 다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후에 혹시 침재, 길쌈, 방직하여 돈을 모을지라도 그 무엇을 아낄손가?”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말이 내 행세를 믿지 못하니, 이후 주색잡기 양기로 수기(手記)를 써 줘세.”

지필을 내어 수기를 쓰는구나.

[A] ‘모년 모월 모일 수기를 기록하여 전하노라. 이춘풍은 조상에 물려받은 누만금을 주색잡기로 다 써버리고, 돌이켜 뉘우치니 후회막급이라. 차일 후로 가중지사(家中之事)를 모두 김 씨에게 맡기므로, 김 씨 치산(治産) 이후로는 누만금의 재산이라도 진실로 김 씨의 재산이요, 가부(家夫) 이춘풍은 한 푼 돈 한 말 곡식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리라. 이후에 또 다시 주색을 밝힌다면 이 수기를 들고 관아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다. 증인에 가부 이춘풍이라.’

책명하여 주니, 춘풍 아내의 거동 보소.

“수기를 들고 관아의 판결을 받겠다 하였으나, 내 어찌 가장(家長)을 걸어 송사(訟事)를 할손가.”

춘풍이 이 말 듣고 수기를 고쳐,

‘이것은 김 씨에게 올리는 수기라. 일후 만약 또 다시 잡기에 빠진다면 진실로 비부지자*라, 수기를 들고 일을 살피리라.’

하여 주니, 김 씨 받아 함롱에 넣고 이 날부터 치가(治家)를 한다.

[가] 침재 길쌈 능란하다. 오 푼 받고 새버선 짓기, 서 푼 받고 새김볼 박기, 두 푼 받고 한삼 짓기, 서 푼 받고 헌옷 깎기, 네 푼 받고 장옷 짓기, 닷 돈 받고 도포하기, 옛 돈 받고 천익* 짓기, 일곱 돈 받고 금침하기, 한 냥 받고 돌찌 누비, 두 냥 받고 바지누비, 세 냥 받고 긴옷 누비, 넉 냥 받고 관복 지며, 겨울이면 무명나이, 여름이면 삼베길쌈, 가을이면 염색하기, 이렇게 사시장철 주야로 쉴 새 없이 사 오 년을 모은 돈을 장변이며 월수 놓아 수천 금을 모았나.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하여 그럴 것이 바이없다.

이때에 춘풍이 아내 덕에 의복관망 꾸미고 고량진미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술로 매일 장취하는구나.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멍멍거리고 내달아서 호조(戶曹) 돈 2천 냥을 대돈번*으로

언어내어 박물군자인 체하고 평양으로 장사 가려 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이 말 듣고 크게 놀라 춘풍더러 하는 말이,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들어 보소. 이십 전에 부모 조업 탕진하고 그 사이 오 년을 결단하고 앉았다가 물정 어두운데 평양 장사 가지 마오. 평양 물정 내 들었소. 변화 사치하고 분벽사창 청루미색* 단순호치(丹脣皓齒)* 반개(半開)하고 고운 노래로 교태하여 돈 많고 허랑한 자는 제 세워 두고 벗긴다는데, 평양 물정 이렇다니 부디 장사 가지 마오.”
 지성으로 만류하니 춘풍이 하는 말이,
 “나도 또한 사람이지, 이십 년 전에 패가(敗家)하여 원통하기 골수에 박혔으니 천금진산환부래(千金盡散還復來)*라 하였으니 낸들 항상 패가할까 속속이 다녀오세.”
 춘풍 아내 이른 말이,
 “연전에 한 푼 돈도 한 말 곡식도 참견 아니 할 뜻으로 수기 써서 내 함롱에 넣었거든 그 사이 잊었는가. 의식을 내게 믿고, 편안히 앉아 먹고 부디부디 가지 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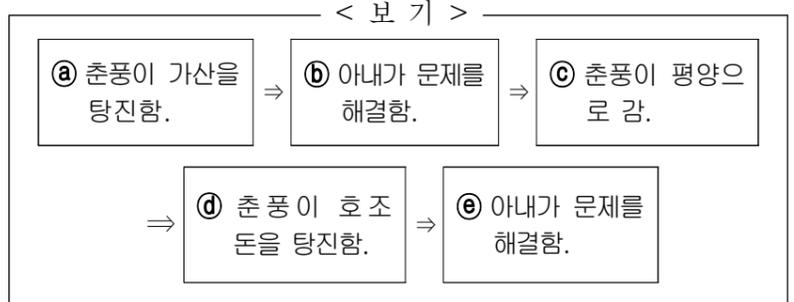
[중략 줄거리]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호조 돈을 모두 잃고 추월의 집 종으로 일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장(男裝)을 하고 비장(裨將)이 되어 춘풍을 찾아간다.

“막중 호조(戶曹) 돈 수천 냥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푼 상납 아니하니, 호조 관자(關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가. 매우 치라.”
 분부하니, 사령 놉이 매를 들고 십여 대를 중타하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었느냐? 바로 아뢰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일푼도 남지 않고, 달리 한 푼 쓴 일 없삽나이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빠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태장(別笞杖) 골라잡고,
 “조금도 사정없이 매우 치라.”
 호령하여 십여 장을 중치하고,
 “이년 바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노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오.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랴, 본부에서 물어주랴?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주장대로 지르면서,
 “바빠 다짐하라.”
 오십 대를 중히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질겁하여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官令)이 지엄하니, 영문 본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비부지자: 천한 자. ‘비부’는 마음씨가 더럽고 못된 남자.
 * 천익: 무관의 공복, 철릭.
 * 대돈변: 돈 한냥에 대해 한 달에 한 돈씩 계산하는 이자.
 * 분벽사창 청루미색: 아름다운 여자가 거처하는 곳. 기생집.
 * 단순호치: 아름다운 여자.
 * 천금진산환부래: 많은 돈을 쓰면 다시 돌아옴.
 * 관자: 관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서.
 * 비장: 감사. 또는 사신의 일을 돕던 무관.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와 ㉣는 모두 춘풍의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 ② 춘풍의 아내는 ㉡의 과정에서 뛰어난 경제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 ③ 춘풍이 ㉢의 과정에서 호조 돈을 빌린 것은 ㉠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 장사 밀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④ 춘풍의 아내가 평양 물정을 들어 ㉢를 만류한 것은 ㉣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 ⑤ 춘풍의 아내는 ㉡의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의 과정에서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할 때 [A]의 ‘수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조선은 남성 가장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가부장제 사회였다. 그런데 「이춘풍전」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경제 체제가 변모하면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실패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장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

- ① 춘풍이 ‘수기’에서 아내의 처산을 인정하는 것은 이후 집안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이겠군.
- ② 집안을 일으키고자 했던 춘풍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내에게 ‘수기’를 써 주게 된 것이로군.
- ③ ‘수기’와 관련해 아내가 춘풍과의 송사를 꺼린 것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④ 춘풍이 아내의 말을 듣고 ‘수기’를 고치는 모습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군.
- ⑤ 춘풍이 조상에게 누만금을 물려받았다는 ‘수기’의 내용에서 경제 체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군.

36.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과 대화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 ③ 세밀한 외양 묘사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들을 나열하면서 사건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_____ [A]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_____
물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_____ [B]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_____
불타는 흠뻑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_____ [C]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언 허이언 구름속에서 _____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_____ [D]
칠월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_____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나)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그릇
언제인가 접시는
깨진다.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에
바싹 깨지는 그릇
인간은 한 번
죽는다.

물로 반죽되고 불에 그슬려서
비로소 살아 있는 흙
누구나 인간은 한 번쯤 물에 젖고
불에 탄다.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깨어져서 완성(完成)되는
저 절대(絶對)의 파멸(破滅)이 있다면,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모순(矛盾)의 그릇.

- 오세영, 「모순의 흙」 -

37.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상의 반전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공간 개념인 ‘여기’는 시간적으로는 ‘지금’과, 상황적으로는 당면한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지금의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인식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여기’의 의미는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여기’를 기점으로 전반부인 1~4연에서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미 부여가, 후반부인 5~8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① [A]에는 화자가 이별이라는 현실에 부여한 의미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B]에는 [A]에서 ‘여기’에 부여한 의미가 변주되어 나타나 있다.
- ③ [C]에서는 현실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C]를 통해 ‘여기’가 화자인 견우뿐 아니라 ‘직녀’에게도 해당하는 현실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D]는 [C]를 변주하면서 미래를 기약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토대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 유사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사유 방식이다. 우리는 유추를 통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일상적 대상에서 인간과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게 된다.

- ① 화자는 ‘깨진다’는 대상의 속성과 ‘죽는다’는 ‘인간’의 속성을 대응시키고 있다.
- ② 화자는 대상과 유사하게 ‘인간’도 ‘물에 젖고 불에 타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는 화자가 대상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화자는 죽음을 잊고 생애에 충실한 대상에서 ‘인간’이 추구할 ‘생애의 영광’을 발견하고 있다.
- ⑤ ‘모순’은 화자가 깨닫게 된 ‘인간’과 삶에 대한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 그 돈은 갚는다는 거야 안 갚을 작정야? 세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 그 떠세*루 남의 돈을 무쪽같이 떼먹으려 드나 보다마는, 김옥임이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원체 예쁘장한 상관이기는 하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마는,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품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을 보던 옥임이는 아니다. 전부터 “네 영감은 어찌 점점 더 젊어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하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고,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옥임이는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지마는, 밀도 끝도 없이 ㉠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추어내는 것을 보고 정례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늙은 영감에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하고, 정례 모친도 비꼬아 주고 싶었으나 열을 지어 썼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픽픽 웃는 바람에,

“이거 미쳐나려나? 이젠 무슨 객설야.”

하고,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 하였다.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두 뜯어 쓰려구, 이렇게 찢쩍거리구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은 옥을 좀 단단히 빼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제 사정 보아서 싼 변리에 좋은 자국을 지시해 바친 밖에! 그것두 마다니, 남의 돈 생으루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구 뭐냐?”

오고 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빗쟁이의 돈 받는 상투 수단인가 싶었다.

“누가 안 갚는대나? 돈두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서니냐 말이야.”

정례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난 돈밖에 몰라. 내일모레면 거리로 나왔게 된 년이 체면은 뭐구, **우정은 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에게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보려 들겠다면!”

하고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피어드는데, 정례 모친은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봉욕에 눈앞이 아찔하여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올랐으나, 언제까지 이려고 섰다가는 예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쳐 ㉢ **옆의 골**로 줄달음질을 쳐 들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없으니 옥임이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정례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스물 예닐곱까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떠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보았을까, 40 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본 옥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은 중늙은이로 보이라. 머리를 곱게 지지고 옅은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맥 유한마담이지, 설마 1할, 1할 5푼으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를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야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마는,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관으로 내세우고 부라퀴같이 덤빈 것이다. 중경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3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거나 하기 전에야 으레 걸리고 말 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떠메어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칸이며 땅 섬지기나마 **몰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을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였다. 상하 식솔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소리를 하지마는 그래야 남의 옥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쫓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곁눈으로 흘겨보고 입귀를 썰룩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 **종로 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멍치고 비비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 멍치고 비비 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옥임이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 내려면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버르기는 하였지마는, ㉤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나 무어나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샘이 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마는 자식도 없이 군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고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 염상섭, 「두 파산」 -

* 떠세: 재물이나 세력 따위를 내세워 첩제하고 역지를 쓰는 짓.

* 생화: 먹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벌이나 직업.

* 취체역: 주식회사의 '이사'의 옛날 말.

* 반민법: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해방 직후에 만든 특별법.

* 제독을 주다: 기운을 꺾어 다시 꿈쩍 못하게 하다.

40.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꾸어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41. ㉠ ~ ㉣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임’은 ㉠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만 계속해서 ‘정례 모친’을 비난했다.
- ② ‘정례 모친’은 ‘옥임’을 달래 ㉢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 ③ ‘정례 모친’은 구경꾼들의 시선과 ‘옥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으로 향했다.
- ④ ㉠에서 표현하지 못한 ‘정례 모친’의 속내가 ㉢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고 있다.
- ⑤ ‘옥임’은 ㉣로 향하면서 ㉠에서 ‘정례 모친’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42. <보기>를 통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두 파산」은 금전적인 이해에 의해 어긋나게 되는 두 여인의 삶을 통해 정신적 파산과 경제적 파산이라는 두 가지 양상의 파산을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이들의 파산을 초래한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사회상에 독자들이 주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①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이나 친구로 지내던 정례 모친에게 ‘우정은 다 뭐냐?’라고 하는 옥임의 말에서, 둘의 관계가 금전적 이해에 의해 어긋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② 한때 ‘신여성 운동’에 참여하기까지 했던 옥임이 현재는 정례 모친에게 빚을 갚으라며 ‘난 돈밖에 몰라’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정신적 파산의 양상이 드러난다.
- ③ 옥임에게 돈을 빌리기도 갚지 못하는 정례 모친이 오히려 옥임에게 ‘이거 미쳐나려나?’라면서 나무라는 모습에서, 경제적 파산이 정신적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④ 옥임을 한때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이었다가 재산을 ‘물수를 당할’ 처지로 설정한 것에서, 옥임의 파산이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의 상황을 틈타 친일파의 아내였던 옥임이 고리대금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43. ㉠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에도 티가 있다’더니 정례 모친의 삶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군.
- ②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도 옥임은 한가하게 남의 걱정이나 하고 있군.
- ③ ‘제 눈에 물대기’라더니 옥임은 남의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군.
- ④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더니 옥임은 그동안 정례 모친에게 하려고 준비해 왔던 말을 실컷 한 것이군.
-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집안의 일로 짜증이 난 옥임이 정례 모친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군.

[44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밋지 안얏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직켜 두세 송이 푸엿구나
 축(燭) 잡고 갓가이 사랑홀제 암향부동* 흐더라 <제2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제3수>

눈으로 기약(期約)터니 네 과연(果然) 푸엿고나
 황혼(黃昏)에 달이 오니 그림즈도 성괴거다
 청향(清香)이 잔(盞)에 췌스니 취(醉)코 놀너 흐노라 <제4수>

황혼(黃昏)의 돛는 달이 너와 기약(期約) 두엇더냐
 합리(閣裡)*의 즈든 쫓치 향기 노아 맞는고야
 넉 엇지 매월(梅月)이 밋 되는 줄 몰났던고 흐노라 <제5수>

- 안민영, 「매화사」 -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음.
 * 합리: 방 안.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매화사」는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연시조에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각 수를 통합하는 구성 원리가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행위나 ‘눈’, ‘달’과 같은 다른 자연물과의 조응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 ① <제2수>에서 화자는 ‘어리고 성근 매화’가 꽃을 ‘두세 송이’ 피운 것을 ‘눈’과의 기약을 지킨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 ② <제2수>에서 화자가 ‘축 잡고 갓가이 사랑’하는 행위에 매화가 향기를 내어 조응하고 있다.
- ③ <제3수>에서 ‘눈’과 ‘달’의 조응이 이루어진 후에야 화자와 ‘매화’ 사이에도 조응이 일어나고 있다.
- ④ <제4수>에서 ‘달’이 뜨자 매화가 ‘그림즈’를 나타내고, 화자의 ‘잔’에도 매화의 ‘청향’이 차오르고 있다.
- ⑤ <제5수>에서 화자는 ‘합리의 즈든’ 매화가 일어나 향기를 내는 것은 ‘황혼의 돛는 달’을 맞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해야만 그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윤희정(尹和靖)의 문인들이 자기 스승을 칭찬하기를 ‘대단하시다. 성현들의 말씀과 육경(六經)의 내용을 환히 이해하고 마음 깊이 터득하시어 마치 자신의 말을 하는 것같이 하시는구나’ 하였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글 읽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처음 글을 읽을 때는 전혀 의심이 없었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나중에 가서는 구절마다 의심스러워진다. 이러한 과정을 한 번 거쳐야만 의심이 점차 풀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해하여 전혀 의심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부했다고 할 수 있다.

- 이이, 「성학집요」 -

29. ㉠~㉣ 중, <보기>에 나타난 정약용의 독서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기 >

다산 정약용은 식견을 새로 여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맹목적인 독서를 혐오하였다. 정약용은 질서(疾書)의 독서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 빨리 메모했던 독서 방법이다. 그는 질서의 핵심이 의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의심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윗글에 나타난 독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을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단계	독서 전략
읽기 전	· 잘못된 독서 태도를 경계하여 자신에게 맞는 독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①
읽기 중	· 글의 구조를 통해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 ② · 자신의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의 분량을 조절하여 읽어야 한다. ③ ·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④
읽기 후	· 내용을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깨달은 바를 내면화 해야 한다. 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안평국의 왕자 적성이는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영주를 얻기 위해 서천으로 떠난다. 성의는 일영주를 구하지만 돌아오던 길에 형인 향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기고, 칼에 찔려 장님이 된다. 성의는 성에 표류하였다가 중국 사신에 의해 황제를 만나게 되고 공주의 벗이 된다.

각설. 안평국 왕비 병세가 쾌복되었으나 성의의 사생 존물을 몰라 밤낮으로 슬퍼하더니 하루는 ㉠ 성의 있던 방에 들어가니 산호 서안에 만 권 서책은 의구(依舊)하나 형용(形容)*이 돈절(頓絶)*한지라. 심회 감창하여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옷깃을 적

시며 슬피 통곡하는데, 홀연 기러기 슬피 울거늘 왕비 울음을 그치고,

“네 비록 금수이나 성의의 소식을 전하고자 왔느냐?”

눈물을 금치 못하더니, 기러기 또 울거늘 괴이히 여겨 시녀에게 묻는데, 큰 소리로 가로되,

“이 기러기는 공자가 기르시던 바이라. 연전에 공자님 임행(臨幸)시에 기러기를 쓰다듬어 경계하여 가로되, ‘네 나와 더불어 일시도 떠남이 없더니 내 이제 곤전(坤殿)* 환후로 하여 만리원정에 가 약을 구하여 올지라. 기간 원별을 당하매 창연한지라. 너는 모름지기 처소를 떠나지 말고 부디 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라. 만일 무슨 소식이 있거든 곧 전하라. 지금 떠나면 언제 서로 모이리요.’ 하시니 기러기 대답하는 듯 응하여 울거늘 공자가 등을 어루만져 가장 사랑하시고 가신 후 우금 나가지 아니하옵기로 궁녀 등이 밥을 먹이옵더니 요새 밤이면 슬피 울거늘 이상하오나 내전이 초원(稍遠)*하옵기로 낭량이 모르심이니이다.”

왕비 청파(聽罷)에 시녀 등을 대책(大責)하사 왈,

“여등(汝等)이 이런 말을 나더러 아니 한다?”

궁녀 등이 황송하와 머리를 숙이더라. 왕비 즉시 기러기를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 비록 미물이나 네 입자 있는 곳을 알지니 서천에 들어가 살았느냐, 망망대해 중에 어별(魚鱉)의 밥이 되었느냐? 만일 살았거든 내 앞에서 세 번 올라.”

이르시니, 기러기 목을 늘리어 세 번 울거늘 왕비 기뻐하시어 가로되,

“네 아는도다.”

이로써 즉시 한 봉 서찰을 쓰시며 가로되,

“네 입자가 살았거든 이 편지를 전할소나?”

기러기 세 번 머리를 조아리거늘, 왕비 즉시 서찰을 기러기 다리에 매고 경계하여 가로되,

“네 두 날개로 만리를 가는 재주라 부디 이 글을 잘 전하라.”

이르니, ㉡ 기러기 세 번 소리하고 두 날개를 치며 청천에 올라 운간(雲間)으로 서북을 향하여 가는지라.

<중략>

성의 옷을 고쳐 벽옥을 따라 ㉢ 금각당에 올라가니 공주 반겨 좌를 주고 물어 가로되,

“그 사이 객고 어떠하뇨?”

성의 큰 소리로 가로되,

“천생이 성상의 하해지덕을 입사와 아직 일신이 편하나이다.”

공주 시녀를 명하여 진수성찬을 내오며 향운(香醞)*을 권하며 상을 물리매, 혹 단저도 불고 혹 단금도 희롱하며 각각 한 수시를 지어 화답하여 서로 칭찬하더니, 문득 월색이 명량하며 홀연 동남으로부터 기러기 슬피 울며 점점 가까이 와 중천에서 금각당을 맴돌아 울거늘, 공주와 좌우 시녀 나와 하늘을 우러러 살펴보고 심히 괴이히 여겨서 서로 볼 즈음에 성의 기러기 우는 소리를 듣고 혼백이 비월하여 생각하되, ‘이 짐승이 반드시 나의 기르던 기러기로다.’ 하고 정신이 어린 듯 취한 듯하여 앉았더니, 기러기 두 날개를 펴며 점점 내려와 성의의 앞에 앉으며 목을 늘리어 슬피 울거늘, 성의 그제야 쾌히 본즉, 기러기 온 줄 알고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를 덥석 안고 그 등을 어루만지며 울어 가로되,

“네 이제 나를 찾아왔으니 증전께서 반드시 승하하시도다.”

언파에 엮어져 혼절하거늘 좌우 시녀 놀라 급히 구할 때에 공주 살펴보니 기러기 다리에 한 봉서 매였거늘 바삐 끌러 본즉 곁봉에 하였으되,

‘안평국 국모는 아자 성의에게 부치노라.’

공주 이르되,

“기러기 다리에 한 봉서가 매여 있으니 그대는 정신을 수습하면 내 때어 읽으리니 자세히 들으라.”

이르고 **봉서**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모년 모월 모일에 안평국 국모는 읍혈하고 아자 성의에게 글을 부치노니 슬프고 슬프다. 네 나의 슬하를 떠난 지 거의 기년이라. 망망천지 사이에 어느 곳에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너의 출천지효(出天之孝)로 나의 명(命)을 위하여 황당한 도사의 말을 듣고 부모 슬하를 떠나 만경창과에 일신을 편주에 실어 서천에 가 일영주를 얻었으니 네 효성을 하늘이 감동하심이나 너의 회정(回程)*하는 소식 없어 슬프다. 나의 아이 창과 중 어별의 밥이 되었느냐? 어느 지방에 의지하여 살았느냐? 네 형이 일영주를 가지고 와 이르되, 네 삭발위승(削髮爲僧)하여 불경에 잠심(潛心)하여 부모 버리고 부귀를 부운 같이 여긴다 하니 그 말을 가히 준신(遵信)*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너의 사생 존물을 모르는 중이나, 일영주를 먹은 후로 백병이 구퇴하여 완인(完人)*이 되었으니 너의 효성은 대순(大舜) 증자(曾子)를 따를지라. 슬프다, 천사만량(天思萬量)하여도 네 형의 불측한 행실은 천고에 드물지라. 너를 시기하여, 노중에 불측한 환(患)을 만나 돌아오지 못함이나. 월명심야(月明深夜)와 일모황혼(日暮黃昏)에 망망한 천지를 부앙하여 부르짖어 울 따름이로다. 하루는 너 있던 방에 가 고적을 살펴본즉 슬픔만 쌓이고, 기러기 슬피 우니 이것은 네가 기르는 짐승인 고로 경계하고 부탁한즉, 이것이 사람의 심사를 요동하게 하는지라, 구만리 장천에 지향 없이 한 봉서를 부치니 행여 명천이 감동하시어 소식을 천만 전할까 바라나니, 기러기 회편에 답서를 볼까 축수하나, 만행으로 소식을 들을진대 구천에 들어가도 한이 없을까 하노라. 만단수회(萬端愁懷)*를 지리히 펴고자 하나 혈루 먼저 가리니 여산약해(如山若海)*한 말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그만 그치노라.’

성의 정신을 차려 듣기를 다하매 가슴이 미어지고 간장이 스는 중 타는 중에 일변 반갑고 일변 처창(棲愴)하매*, 정신이 쇠락(灑落)*하여 바삐 일어나 배사할 제, 문득 두 눈이 번개같이 뜨이니, 비하건대 구년지수에 햇빛을 본 듯, 칠년대한에 빗발을 본 듯, 침침칠야에 명월을 대한 듯, 황천에서 살아온 듯, 청천에 뛰어오른 듯, 생시인지 몽중인지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어린 듯 취한 듯이 정신이 황홀한지라.

- 작자미상, 「적성의전」 -

- * 형용: 사람의 생김새나 모습
- * 돈절: 전혀 없음.
- * 곤전: 왕비를 높여 이르는 말
- * 초원: 거리가 조금 멀.
- * 향운: 술의 한 종류
- * 회정: 돌아오는 길에 오름.
- * 준신: 그대로 좇아서 믿음.
- * 완인: 병이 완전히 나은 사람
- * 만단수회: 마음속에 새겨진 온갖 근심
- * 여산약해: 산과 바다와 같이 매우 많음.
- * 처창하다: 몹시 구슬프고 애달프다.
- * 쇠락: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함.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안평국 왕비는 성의와 함께 기러기를 길렀다.
- ② 성의는 항의의 계략에 의해 서천으로 떠났다.
- ③ 안평국 왕비는 성의의 현재의 거처를 알지 못한다.
- ④ 안평국 왕비는 항의의 행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⑤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 했던 성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3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와 ㉡는 기러기라는 매개체로 인하여 연결되는 공간이다.
- ② ㉠는 왕비가 상황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고, ㉡는 성의와 공주가 친교를 나누는 공간이다.
- ③ ㉠는 왕비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는 공간이고, ㉡는 성의가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공간이다.
- ④ ㉠는 왕비가 성의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공간이고, ㉡는 성의가 왕비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공간이다.
- ⑤ ㉠는 왕비의 지혜가 발휘되는 공간이고, ㉡는 성의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공간이다.

33. **봉서**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 ② 주인공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주인공이 신체적 장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 ④ 주인공이 주위 사람들과 겪는 갈등을 해소시켜 준다.
- ⑤ 주인공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34. ㉠의 상황에서 왕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으)로 성의의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구나.”

- ① 고식지계(姑息之計)
-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 ③ 어부지리(漁父之利)
- ④ 천우신조(天佑神助)
- ⑤ 타산지석(他山之石)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지당(池塘)에 활수(活水)*이 드니 노는 고기 다 헬로다* 송음(松陰)에 청뢰(淸籟)*이 나니 금슬(琴瑟)*이 여기 있다 안자서 보고 듣거든 도라갈 주를 모르로다. <제2수>

[B] 술 아래 길릴 내고 못 우히 덕*를 뱀니 풍월연하(風月烟霞)*는 좌우(左右)로 오느괴야 이 스에 한가히 안자 늘는 주를 모르리라. <제3수>

[C] 집 두혜 즈차리* 뜯고 문 알퐁 물근 심 기러 기장밥 닉게 짓고 산채갱(山菜羹)* 므로 슬마 조석(朝夕)게 풍미(風味)이 족(足)흠도 내 분인가 흥노라. <제5수>

[D] 빅 고프거든 버구렛* 밥 먹고 목 므르거든 바갯* 물 마시니
이리호는 가온대 즐거오미 쏘 인는다
늪의외* 부운(浮雲)* 궂튼 부귀(富貴)이사 브를 주리 이시라.
<제6수>

[E] 도원(桃源)이 잇다 호야도 네 듣고 못 봤더니
홍하(紅霞)*이 만동(滿洞)호니* 이 진짓 거괴로다
이 몸이 쏘 엇더호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호노라.
<제14수>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

- * 활수: 흐르는 물
- * 헬로다: 헤아리겠다
- * 청뢰: 맑은 바람 소리
- * 금슬: 거문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디: 축대(築臺)
- * 풍월연하: 바람, 달, 안개, 노을. 여기서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뜻함.
- * 즈차리: 산나물의 일종으로 추정됨.
- * 산채갱: 산나물로 만든 국
- * 버구렛: 바구니의
- * 바갯: 바가지의
- * 늪의외: 다른 사람의
- * 부운: 뜬구름
- * 홍하: 해 주위에 보이는 붉은 노을
- * 만동호니: 골짜기 안에 가득 하니

35.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탄을 통해 화자의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B]와 달리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주변 경치를 묘사한 후, 그 속에 머물며 즐거워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에는 [D]와 달리 화자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 드러나 있다.
- ④ [C]와 [D]는 모두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그러한 삶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는 화자가 처한 공간을 이상향에 견주어 그곳에서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자긍심이 드러나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란한 것뿐, 무슨 이렇다할 병이 있어서도 아니요 자기 체질에 저혈(豬血)*이 맞으리라는 무슨 근거를 가져서도 아니었다. 손이 바쁘던 때는, 어서 이 잡무에서 헤어나 조용히 쓰고 싶은 것이나 쓰고 읽고 싶은 것이나 읽으리라 염불처럼 외워 왔으나 이제 막상 손을 더 대려야 댈 수가 없게 되고 보니 ㉠ 그것들이 잡무만은 아니었던 듯 와락 그리워지는 그 편집실이요 그 교실들이었다.

사람이 안정한다는 것은 손발이 편안해지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은 한동안 문을 닫고 손발에 틈을 주어 보았다. 미닫이 가까이 앉아 양상한 앵두나뭇가지에 산새 내리는 것도 내다 보았고 가랑잎 구르는 응달진 마당에 싸락눈 뿌리는 소리도 즐겨 보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도 마음에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신경을 날카롭게 메마르게 해주는 것만 같았다. 이번 사냥은 이런 신경을 좀 녹여 보려는 한갓 산책에 불과한

것이였다.

한은 즐거웠다. 오래간만에 학생 때 친구 윤을 만나는 것도 반가웠다. 편지 한 장으로 구정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주선해 놓고 부르는 그의 우정이 감사하였다. ㉡ 오래간만에 촌길을 걸을 것, 험준한 산마루를 달려 볼 것, 신에게서 받은 자세대로 힘차게 가지를 뺀 정정한 나무들을 쳐다볼 수 있을 것, 나는 평을 떨구고, 닫는 노루와 멧도야지를 고꾸라트릴 것, 허연 눈 위에 온천처럼 용솟음쳐 흐를 피, 통나무 화롯불에 가죽 째 구워 뜯을 짐승의 다리, 생각만 하여도 통쾌한 야성적인 정열이 끊어올랐다. 아무리 문화에 길들였어도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야성의 향수가 늘 대기하고 있는 듯하였다.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사흘째 되는 날, 한은 늙은 포수가 커다란 멧도야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런데 누군가가 멧도야지의 일부는 떼어가고 일부는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 늙은 포수는 범인을 잡기 위해 몰이꾼으로 부렸던 산골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게 하여 물에 기름기가 뜨는지 확인하려 한다.

좌중이 일시에 눈들이 서로 손으로 갔다. 모두 들썩은 가진 손이었다. 모두 울퉁불퉁 마디들이 힘찬 손이었다.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인, 죄 없는 손들이었다. 더구나 피로 살지 않고 힘으로 살기에, 도회지 사람들의 발보다도 더 험해진 그 순박한 손들에게 이런 야박스런 모욕이란 생후 처음 들일 것이였다.

한은 한편이긴 하나 늙은 포수가 오히려 알미웠다. ㉢ 이 자리에 한 손도 그 죄의 기름이 뜨는 손은 없기를 바랐다. 그러나 데운 물그릇이 나오기 전에 여러 사람의 시선을 혼자 쫓이는 손이 있었다. 곤색 양복 조끼의 손이었다. 깍지도 껴보고, 무릎 밑에 깔아도 보고, 허리춤을 급적거리도 보고, 나중에 완전히 떨리어 곰방대를 내어 담배를 담았다.

눈치 빠른 늙은 포수는 얼른 끼고 앉았던 화로를 내밀었다. 담뱃불을 붙이느라고 길게 뺀 고개가 어딘지 어색할 뿐 아니라 불에 갖다 대는 대통이 덜덜 떨리었다. 늙은 포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이 담뱃 붙여, 뭘 붙여?”

양복 조끼는 그만 입에서 놓쳐 버린 곰방대를 화로에서 집노라고 찢찢매었다. 늙은 포수는 움광한 눈으로 그를 할퀴듯 쏘아 보았다. 그만 양복 조끼의 얼굴은 화로보다도 더 이글거렸다. 늙은 포수는 문을 열어 젖히며 안으로 소리를 쳤다.

“취인장? 물 데 내올 것두 없쇠다.”

그리고,

“한 사람만 남구 죄 없는 분들은 하나씩 일어나 나가슈.”

하였다. 끝내 못 일어서기는커녕, 고개도 못 들고 남아 있는 것이 이 양복 조끼였다. 늙은 포수는 어느새 철썩 그의 귀땀기를 갈졌다.

결국 구장이 나와, 자기 동리에서 생긴 불상사를 사과하였고, 이쪽의 처분을 기다리노라 하였다. 늙은 포수에게서는 이내 계산이 나왔다.

“피가 그 돼지한테서 다섯 사발만 나왔겠소? 소불하* 다섯 사발 치구두 오십 원허구, 쓸개가 어제 저 사람 제 입으루두 사십 원짜린 염려없을 게라구 그랬소. 사십 원허구, 뒷다릴 함 부루 썰어 났으니 가죽이 못쓰게 되잖았소? 가죽값 십 원만

허구, 백 원만 물어 노슈. 오늘 이 지경 됐으니 사냥할 맛 있게 됐소? 오늘 하루두 우린 손해요.”

“참, 손해가 많으시군요! 허나 이 사람이야 단돈 십 원을 해 낼 주체가 어디 되나요. 요 너며 이 사람 사춘이 한 분 계시니 내 넘어가 의논허구 과히 억울치 않두록 마련하오리다. 아무튼 주재소에만 알리지 말구 내려가 기다려 주시지요.”

㉔ 늙은 포수는 주재소 말이 저쪽에서 나온 김이라, 오후 세 시까지 기다려서 소식이 없을 때는 주재소에 고소를 한다고 하였

고,
“저따위 덜된 자석은 몇 해 감악소 밥을 맥여야 사람 구실을 할 거요.”

하고 올려메었다.

아무튼 도야지를 각을 떠 석 점이나 지워 가지고 거리로 내려왔다. 식전에 십 리 길을 걸은 속이라 모두 시장했으나 한 사람도 고기 맛이 있을 리 없었다. 뒷일은 늙은 포수에게 맡기고 한과 윤은 젊은 포수를 데리고 꿩 사냥을 나갔다가 어스름해서야 돌아와 보니, 일은 더욱 상서롭지 못하게 번져 있었다.

양복 조끼의 사춘형이 돈 삼십 원을 주며, 이 돈만으로는 포수가 들을 리가 없으니 또 주재소에서 소문으로도 벌써 모르고 있을 리 없을 것이니, 주재소로 가서 때리는 대로 맞고, 그저 죽을 때라 잘못했노라 하고, 이 돈 삼십 원밖엔 해놓을 수가 없으니, 이 돈으로 무사하게 처분해 달라고 빌라고 일러 보냈는데 돈 삼십 원을 넣은 양복 조끼는 주재소로도 포수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밤이 이슬해서는 그가 월정리역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차표 사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까지 퍼지었다.

사냥은 이렇게 마치고 말았다.

차가 창동을 지나니 자리가 수선해지는 바람에 한은 깜박 들었던 잠을 깨었다. ㉕ 집이 있는 서울이 가까워 온다. 그러나 한은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그는 생각하였다. 단돈 삼십 원으로도 달아날 수 있는 그 양복 조끼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넓으랴! 싶었다.

- 이태준, 「사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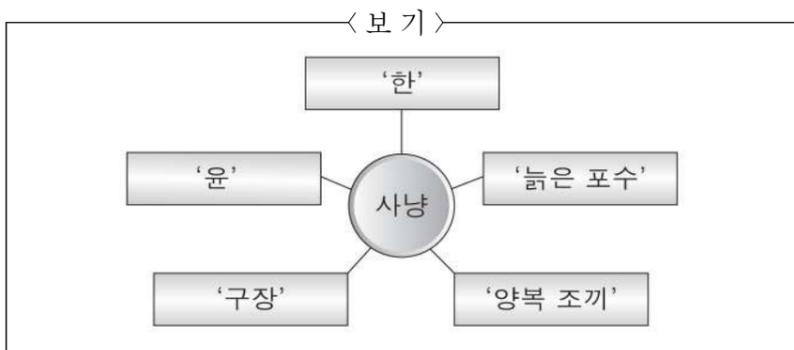
* 저혈: 돼지의 피

* 소불하: 적게 잡아도

37. 위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시켜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과거 사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38. <보기>는 ‘사냥’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은 어떤 이도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 ② ‘늙은 포수’는 사냥에서 얻은 포획물이 ‘양복 조끼’에게 훼손당하여 손해를 입는다.
- ③ ‘윤’은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것에 대하여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 ④ ‘한’에게 있어서의 사냥은 ‘늙은 포수’와 달리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에 대한 갈망이다.
- ⑤ ‘구장’은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를 해결하기 위해 ‘늙은 포수’와 ‘양복 조끼’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㉑~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다시 일상적인 공간으로 회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인공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도시에서 벗어나 비일상적 공간인 야성의 세계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곳 역시 매물찬 계산의 논리와 위압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라는 것을 확인하며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 어떤 공간에서든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① ㉑ : ‘편집실’과 ‘교실’은, 식민지 지식인이 찾아가고 싶어 하는 비일상적 공간이군.
- ② ㉒ : ‘촌길’과 ‘힘준한 산마루’는, 야성의 세계에 대한 인물의 지향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 ③ ㉓ : ‘이 자리’는, 야박하고 계산적인 논리에 의해 삶이 속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공간이군.
- ④ ㉔ : ‘주재소’는 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비일상적인 세계도 위압에 의해 지배됨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 ⑤ ㉕ : ‘서울’은, 질곡의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루해
너의 손목 싸쥐면
고드름은 운하(運河) 못 미쳐
녹아 버리고.

풀밭
부러진 허리 꺾건지다 보면
밀둥 긴 폭포(瀑布)처럼
역사(歷史)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

피다순 쪽지 잡고
너의 눈동자 령(嶺)넘으면
정전지구(停戰地區)*는
바심*하기 좋은 이슬젖은 안마당.

고동치는 젓가슴 뿌리세우고
치솟은 삼림(森林) 거니노라면
초연(硝煙)* 걷힌 밭두덕 가
새벽 열려라.

- 신동엽, 「새로 열리는 땅」 -

- * 정전지구: 일시적으로 전투가 중지된 지역
- * 바심: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낱알을 거두는 일
- * 초연: 화약의 연기

(나)

아마 무너뜨릴 수 없는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빈 듯하면서도 공터는
늘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
공터에 지는 바람, 봄비는 바람,
때때로 바람은
숨털에 싸인 풀씨들을 던져
공터에 꽃을 피운다
그들의 높고 시듬에
공터는 말이 없다
있는 흙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볼 뿐.
밝은 날
공터를 지나가는 도마뱀
스쳐가는 새가 발자국을 남긴다 해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빗방울에 자리를 바꾸는 모래들,
공터는 흔적을 지우고 있다
아마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요가
㉠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최승호, 「공터」-

4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수미상응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동엽의 현실 인식은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에 머물지 않고 '있어야 할 현실'을 지향한다. 이 시에서도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현실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결국 이 시에서 '있어야 할 현실'은 민족 공동체의 염원과 기대가 담긴 민족 화합의 장이다.

- ① '고드름'은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민족 화합의 현실로 볼 수 있군.
- ② '부러진 허리'는 민족 공동체의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역사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는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정전지구'는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⑤ '새벽 열려라.'는 민족 공동체의 염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방황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② 화자가 통념과 달리 새롭게 바라보는 대상이다.
- ③ 화자의 세계에 대한 대결 의지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④ 화자가 낯선 세계를 동경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⑤ 화자의 삶이 투영되어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상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현'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현실을 개혁하려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지식인이다. '현'은 일제 강점기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주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한 생활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은 월북했다가 6·25때 돌아온 친구 '연호'가 주도하는 인민재판에 분노하여 총을 난사하고, 자신도 총상을 입은 채 동굴로 피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S#53. 읍내 플랫폼

이른 새벽, 안개 속에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길 떠날 차림의 현과 고영감, 어머니가 온다. 품속에서 여남은 장 ㉠ 지전 다발을 꺼내더니.

고영감 아랫말 과수원 판 돈이여, 헛되이 쓰지 말구 꼭 대학에 붙어서 판검사가 되야 혀.

공손히 받는 현.

고영감 네가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되야 혀. 부디 성공을 해라.

이윽고 먼 기적 소리. 기차가 들어온다.

현 그럼, 할아버님.

고영감 오냐. 일본에 가 거처를 정하걸랑 곧 연락을 혀. 돈도 필요하면 더 보낼 테니께.

현 (어머니를 돌아보다.)

현모 내 걱정 말구 아무쪼록 객지에서 몸 성히 다녀와라.

눈물고인 시선 꼭 손목을 잡아준다. 기차에 오르는 현. 저만치 역 구내에 영순이가 서 있다. 가만히 손 들어주는 현. 영순 돌아서 온다. 이윽고 ㉡ 발차 신호. 천천히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점차 멀어지는 그들. 손을 흔드는 현.

S#54. 기차 안

차창에 앉은 현. 멀어져가는 고향 풍경. 자꾸 뒤돌아본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간다. 어두워지는 주위. 웬일일까? 기차만 가고 현만 남아 있다. 이상하다. 동굴 안에 달랑 남아 꿈결인 양 둘러보는 현.

S#55. 동굴 안(밤)

동굴 속에 앉아 있는 현. 몽롱한 의식 속에 괴로워하다가 퍼뜩 눈을 뜬다. 뚝, ㉢ 떨어지는 물방울, 아, 역시 동굴 속이라 정신을 가다듬어 내다보는 현.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다. 점점 기력이 쇠진하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현. 상처 찌시는 다리에 가만히 손을 댔다가 눈앞에 가까이 본다. ㉣ 검붉은 핏자국, 가쁜 숨결. 이윽고 헛소리 하는 현.

"..... 죽는 걸까?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 맥박이 뭘 적마다 피가 흐른다. 몇 시간이나 더 지탱할 수 있을까...... 아니 그놈이 올 텐데...... 그놈은 꼭 오고야 말 것이다."

메마른 입술. 전신을 스치는 소란. 현, 총신을 잡고 고통에 쩌

그리며 가만히 일어난다. 지레 문 어금니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 온다. 현, 다리를 끌고 나가 동굴 입구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마신다. 얼굴을 적시는 빗줄기. 어두운 계곡에 뽀얀 물보라. 저 멀리 마을 쪽에 ㉠ 예광탄 하나가 밤하늘을 굶는다. 흙뭉치 놀라는 현. 충신을 거머쥐고 겨냥하며 슬금슬금 안으로 든다. 마치 게 한 마리 나오려다 도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다. 현, 눈을 지그시 감고 고통을 참는다.

현 놈은 온다...... 꼭 온다...... 나를 죽이러 온다......

문득 먼 포성. 흙뭉치 귀를 기울이는 현. 계속되는 포성.

현 천둥소리? 아니 저건 포 소리 같은데...... 포 소리...... 포 소리가 분명해.

현의 목소리가 우릉우릉 굴속을 메아리쳐 굴러가며 거기 다시 환청으로 누구의 목소리가 메아리 되어 울리며,

“(오노오노 소노 도꼬로에 에시무) 모두들 각자의 자기 설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개인을 절대적 단위로 하고 무원칙적인 평등과 무제한한 자유를 목적으로 한 서구의 사회 질서는 극도의 혼란을 조장케 되었고 그 문명은 바야흐로 몰락의 과정에 이르게 된 것이며......”

S#56. 일본 제대 강의실

철판에 커다랗게 팔굉일우(八紘一宇) 휘갈겨 써 놓고 변사조의 강의를 계속하는 동양윤리학 교수 다까라. 멍한 얼굴로 강의를 듣는 현.

다까라 이때야말로 빛은 동방으로부터 첫손 미족이 쫓기할 때는 당도한 것이다. (오노오노)...... 그것은 존재의 군화원리를 투시한 것이며 겸허한 인간 정신의 가치는(고에 다까라니 우따우모노)...... 소리 드높여 노래하는 것이라. 역사적 대사명...... 팔굉일우 얼마나 장엄한 선언이냐?

장엄한 선언? 비웃듯 되물어보는 현의 표정.

다까라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미영의 굴레에 억압된 황색민족을 해방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장엄한 사명이냐?

S#57. 동굴 안(밤)

눈감은 채 괴로워하는 현.

현 그래서?

S#58. 강의실

다까라 (쪼르르 달려가 흑판에 대일본제국이라고 휘갈겨 쓰고) 따라서 우리 국민 각자는 이 거룩한 대의에 한 목숨 초개 같이 버려 천황 폐하의 황은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다. 보라. 들에 노는 축생일지라도 그들 자신을 벌함으로써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들의 한 가닥 뼈마져 인간을 위해 달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

S#59. 동굴 안(밤)

“(따지듯) 달게?”

- 선우휘 원작. 이은성 외 각색, 「불꽃」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고 있다.
- ② 다양한 효과음이 활용되어 작품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
- ③ 시간의 역전된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 ⑤ 공간의 변화에 의해 현실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나타난 장면 전환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영화의 장면은 연속된 시간이나 공간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공간이나 연속성을 벗어난 시간으로 장면이 전환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공간이나 시간을 연결하는 경우, 두 장면의 연속성을 암시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는 주로 선·후행 장면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유사성, 선·후행 장면 내의 소재나 형상의 유사성, 선·후행 장면에 포함된 소리의 유사성 등으로 표현된다.

- ① S#54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S#55의 동굴 안은 어둠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을 이용한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군.
- ② S#55에서 굴속에서의 현의 목소리와 일본인 교수의 목소리는 메아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S#56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군.
- ③ S#56에서 S#57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강의에 대해 현이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의에 대한 반응’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으로 연결시키고 있군.
- ④ S#57에서 S#58로의 장면 전환은 괴로워하는 현의 신음 소리와 교수의 강의 소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 ⑤ S#58에서 S#59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말의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달게’라고 반문하는 ‘현’의 말의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45. ㉠ ~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현’에 대한 ‘고영감’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은 이별의 시간이 되었음을 청각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 ③ ㉢은 ‘현’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있다.
- ④ ㉣은 ‘현’의 부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은 자신을 구해줄 사람에 대한 ‘현’의 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릇 책을 읽는 자는 반드시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며, 공경히 책을 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정순한 생각으로 익숙히 읽고 깊게 생각하여 깊은 의취를 이해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하니, 만일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본받지 않아서 몸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먼저 『소학』을 읽어서, 아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히 하는 도리에 대해 일일이 자세히 익혀서 그것을 힘써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학』 및 『후문』을 읽어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하나 하나 참으로 알아서 성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중략)

이상의 오서와 오경을 돌러가며 익숙히 읽음에, 이해하기를 마치지 않아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날마다 밝아지게 하고, 송나라의 선현들이 지은 책인 『근사록』, 『가례』, 『심경』, 『이정전서』, 『주자대전』, 어류(語類) 및 기타 성리설 같은 것을, 마땅히 틈틈이 정독해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항상 내 마음에 젖어 들어 어느 때고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남은 여가에 또한 역사책을 읽어 고금을 통하고 사물의 변화에 통달해서 식견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단 잡류의 바르지 않은 책이라면 잠시라도 펼쳐 보아서는 안 된다.

대체로 책을 읽음에, 반드시 한 책을 숙독하고 뜻과 취지를 모두 깨달아서 관통해서 의심을 없앤 다음에, 다시 다른 책을 읽어야 하고, 많이 읽기를 탐하고 얻기를 힘써서 조금하게 섭렵하지 말아야 한다.

- 이이, 「격몽요결」 -

29. 윗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에 유용한 실용 도서를 집중해서 읽었지만 이런 독서는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이 펼쳐진 대하소설을 찾아 읽었다. 대하소설을 읽으니 사회와 다양한 인간형을 이해하게 되어, 회사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① A는 B에 비해 재미와 흥미를 위한 독서를 선호하는군.
- ② A는 B에 비해 최신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독서를 강조하는군.
- ③ A는 B와 달리 관심 분야의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④ B는 A에 비해 생활의 문제와 관련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 ⑤ B는 A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넓히는 독서를 주장하는군.

30.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어야 한다.
- ②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읽어야 한다.
- ③ 책을 정독하여 깨달은 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 ④ 책에 담긴 뜻과 취지를 완전히 깨우쳐야 한다.
- ⑤ 바른 자세를 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공명은 조조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는 관공이 혹시 조조를 놓아주지 않을까 염려한다. 관공은 목숨을 걸고 조조를 꼭 잡아오겠다는 군령장을 쓰고 조조를 잡으러 떠난다. 쫓기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관공에게 잡히는데, 조조는 과거 관공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었다.

[아니리]
칼을 번쩍 빼어 들고 조조 앞으로 바싹 달려드니 조조가 깜짝 놀래 목을 딱 움추리니 관공이 빙긋이 웃으며,
“웃깃으로 내 청룡도를 피한단 말이냐.”
“글쎄요, 그러기에 장군님은 제발 가까이 서지 마옵소서.”
“네 말이 날다려 유정타 허며 어찌 가까이 서지는 말라느고.”
“글쎄요, 장군님은 유정하나 청룡도는 무정하여 고정을 베일까 염려로소이다.”
관공이 웃으시며 조조의 지기(志氣)를 떠보려고 청룡도를 높이 들어 조조 목을 베어낼 듯,
“검여두이혼인(劍與頭而婚姻)하면 생기자유혈(生其子流血)이라. 네 목에 피를 내어 내 칼을 한 번 씻으랴 함이로다.”
목을 넘겨 땅을 킁 찌르니 조조 정신 아찔하여 군사들을 돌아보며,
“야들야 청룡도가 잘 든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구나. 아프잖게 잘 도려 가신다. 내 목 있나 좀 보라.”
관공이 웃으시며,
“목 없으면 죽었거늘 죽은 조조도 말을 하느냐.”
“예. 그는 정신이 좋삽기로 말은 겨우 하거니와 혼은 벌써 피난간 지 오래로소이다.”
관공은 본래 조조의 은혜를 입은지라 조조를 놓을까 말까 망설이며 결정을 못하고 있던 차에,

[자진모리]
주창이 여짜오되,
“장군님은 어찌하여 첫 칼에 베일 조조 살려 두려 하시는지. 옛 일을 모르시오. 강동의 모진 범여 함양을 파한 후 홍문연 앓은 패공 무심히 거저 놓아 항장(項將)의 날랜 칼이 쓸 곳이 없었고* 계명산 추야월에 장량(張良)의 옥통소 한 곡조 슬피 불어 팔천병 흘었으니 오강풍랑 자문사(自刎死)라.* 하물며 조조는 처세에 능하고, 난세에 간웅이라. 장군이 만일 놓아 주면 소장이 잡으리다.”
별안간 달려들어 조조 멱살을 꼭 잡으며,
“왕의 목숨이 주창의 손에 달렸도다. 내 손에 달린 목숨 네

어디로 피할소냐.”
 냅다 잡아끄니 조조 놀래 벌벌 떨며,
 “여보 주 별감(周別監) 술 많이 받아 드릴 테니 제발 날 좀
 놔주세요.”
 관공이 웃으시며,
 “아서라 아서라 그리 마라. 어디 차마 보겠느냐. 목숨일랑 끊
 지 말고 사로잡아 가자.”
 좌우에 제장군졸을 한편으로 갈라 세우고 관공이 말머리를 돌
 리실 제 조조가 급히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아난지라. 관공이
 거짓 분노하며,
 “내 분부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달아나니 그 죄로 죽어봐라.”

[중모리]

조조 듣고 말 아래 뚝 떨어지니 장졸들이 황겁하여 장
 군 말 아래 가 두 손 합장 비는디 사람의 인륜에 못 볼래
 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전 비나이다. 살려주오 살려주
 오 우리 승상 살려주오. 우리 승상 살려주면 높고 높은
 장군 은혜 본국 친리 돌아가서 호호 만세 하오리다.”

조조 듣고 기가 막혀,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나 죽기는 설잖으나 가냘픈 너희
 모습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풍파에 곤한 신세 고향 가
 는 길에 장군님을 만났으니 가냘픈 우리 모습 설마 살
 려 주시제 죽일소냐.”

관공이 꾸짖어 왈,

“이 놈 조조 들어보아라. 내 너를 잡으러 올 때, 군령장
 에 다짐을 두었으니 그대 놓고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
 할까.”

조조가 비는 말이,

“현덕과 공명 선생이 장군님 아시기를 오른팔로 민사오
 니 초수(草獸)같은 이 몸 조조 아니 잡아 가드래도 죽
 이지는 않으리다. 장군님 타신 말과 청룡도에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하오.”

관공이 감심하여 조조를 놓아주고 말을 돌려 돌아가니 세
 인이 노래를 허되, ‘슬겁구나, 슬겁구나.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가 살아가니 천고에 늙름한 대장부는 관공인가 하노라.’

[아니리]

관공은 본국으로 돌아와 공명전 앞드려 왈,
 “용렬(庸劣)한 관모는 조조를 잡고도 놓아 주었사오니 의율시
 행(依律施行) 하옵소서.”
 공명이 내려와 관공의 손을 잡고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로 장군을 그 곳에 보냈으니 그
 일을 뉘 알리요.”

[옛중모리]

관공은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를 살려주니 인후(仁厚)하신 관
 공 ㉠이름 천추에 빛나더라. 그 뒤야 뉘가 알리. 더질 더질.
 -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

* 강동의~없었고: 한나라 향우가 유방을 죽이지 않고 살려 준 고사.
 * 계명산~자문사라: 한나라의 전략가인 장량이 고도의 심리전으로 초나라 군
 대를 해산시켜 향우를 자결에 이르게 한 고사.

31. 윗글을 연극으로 만든다고 할 때,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망의 덧에 걸려 쓰러지며
- ② 의리를 지키려 군율을 어기고
- ③ 백성들의 울음소리 하늘에 닿아
- ④ 패잔병의 슬픈 노래 전장을 울리며
- ⑤ 권력 투쟁에서 밀려 쓸쓸히 사라지고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인물의 과장된 행동이 나타나 있다.
- ② [A]는 인물의 행동을 회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③ [B]는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어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 ④ [A]와 달리 [B]에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⑤ [A]와 [B]에는 모두 관습적 표현을 통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 있다.

3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쓴 ‘작품 속 인물 탐구’에 대한
 보고서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벽가 인물 탐구〉	
 <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조’와 대면하여 호통을 치는 모습에서 위엄 있는 장군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① ○ ‘조조’에게 도움 받은 과거를 잊지 않고 ‘조조’를 놓아주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②
 <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지에 몰려서도 자신의 장졸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에서 위선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③ ○ 살길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 적장에게 빌고 있는 모습에서 비굴한 패장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④
 <주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설이는 ‘관공’과 달리 적장을 제거하려는 단호한 모습에서 원칙을 고수하려는 면모가 드러난다. …… ⑤

34. ㉠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방백세(流芳百世)
- ② 학수고대(鶴首苦待)
- ③ 금의환향(錦衣還鄉)
- ④ 타산지석(他山之石)
- ⑤ 상전벽해(桑田碧海)

著(김가성 저)'가 세 가지나 더 있다. 꼬마 점원이 무어라고 중얼거리면서 책을 바로잡는 것을 보고 나도 행하고 나와 버렸다.

바로 추석날이다. 신문사에 불일이 있어 들렀더니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잡담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은 기자요 두 사람은 손님이었다.

“가성이란 놈, 죽일 놈이야. 지난 초열흘날 결혼했는데 청첩장 하나 없잖아. 그 며칠 전에 길에서 만났는데두 아무 말 없구, 관호한테 물으니 동창이라고 부른 건 두민이밖에 없대.”

“두민인 의살해서 돈냥 벌었겠다, 그럴 법하지 뭐야.”

“고거 큰일났어. 뽕질뽕질 돌아만 땡기구…… 게다가 제간엔 큰 권위자루 자처한다지.”

“흥, 왜놈덕을 단단히 봤지, 무호동중에 이작호(無虎洞中狸作虎)*야.”

“일종의 새치기지.”

“새치기의 권위자가 하하…….”

“㉠새치길수록 꺾테기는 점잖구 한다는 소리는 크거든.”

“그 무슨 책인가 한 권 내구 꽤 벌었다지, 더 점잖아지겠군.”

모두들 가성의 진짜 동창인 모양이다.

—가성이 그릴 리 있나? 그 일람척기하던 가성이, 다른 가성이겠지.

나는 변명하고 싶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김가성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소이연을 푹푹히 가르쳐 주고 싶었으나 아는 것이 없는데다가 말주변까지 없으니 가슴만 답답하였다.

새파란 청춘에 벌써 학계의 권위자가 되었으니 그의 앞날은 어찌면 아인슈타인쯤 될지도 모른다. 못되어도 일본의 유가와(湯川) 따위는 어렵도 없다고 은근히 기대하고 혼자 좋아서 어깨를 으쓱해 왔는데 그럴 리가 있나? 다른 가성이겠지.

하루는 옆집 문간방에서 자취하는 S대학생이 도끼 빌리러 왔기에,

“김가성 교수님 잘 계세요?”

하고 물었더니,

“네?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나는 그가 어려서 일람척기하는 신동이었던 것과 제국대학을 나오고 미국 가서 깊이 연구한 학자요 권위자니 크게 이루는 바가 있으리라고 자랑삼아 선전삼아 퍼부었다.

“글쎄요…… 뜯소문에는 다섯 가지 위원을 겸하고 있다니까 그런지는 몰라두…… 참 요새는 또 어느 무역회사 중역이 됐다나 부던데요.”

학생의 달갑지 않은 대답과는 달리 나는 여기서 실로 삼탄(三嘆)하였다. 교수 자리는 자리대로 차지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 행세는 행세대로 하고—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푸르다더니 과연 그런 말이 아니다.

“잘 살구 출세하구 더 바랄 게 무에 있어요, 과연 모두들 기대하던 대루 됐군.”

내가 이렇게 응수하니,

“그렇지만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말미를 떼는가 했더니 멍하니 건너편 산꼭대기를 바라보다가 일어서 도끼를 쥐고 나가 버렸다. 나 같은 신문배달 무식쟁이를 상대로 얘기해 보았자 얘기가 안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별놈이 별소리를 다해도 내가 경애하는 김가성 교수는 일인

십역이라도 능히 감당할 천재요, 그 지식으로 말하면 고급과 동서를 전부는 몰라도 반쯤은 통했으리라 믿는 까닭에 그에게 대한 경애나 신뢰가 털끝만치라도 동요할 리 없다. 그는 단연 거리에 굴러다니는 어중이떠중이와는 유가 다르다.

그 후 나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아마 지금쯤은 직함도 더 늘고 저서도 부쩍 많아져서 더욱더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으리라.

김가성론을 마친다. 이로써 내가 김가성 교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으니 나도 조금 잘나질까 남몰래 기대하고 있다. 말꼬리에 붙어서 천 리를 가려는 파리의 심사라고 험하지 말기를 바란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 조상의 그 알뜰한 전통을 낸들 잊을까보나.

— 김성한, 「김가성론」 —

* 무호동중에 이작호(無虎洞中狸作虎):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득세함.

3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학적 표현으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중심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성격 변화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 서술하여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삽화적 사건을 나열하며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8.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어수룩함에 대비되어 ‘김가성’의 숙물성이 부각된다.
- ② ‘김가성’은 ‘나’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세상에 알린다.
- ③ ‘김가성’에 대한 ‘나’와 타인의 평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 ④ ‘중학생’, ‘세 사람’, ‘S대학생’을 통해 ‘김가성’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난다.
- 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김가성’에 대한 ‘나’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39. ㉠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분야만 파고드는 열정이 필요하다.
- ② 사람은 걸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③ 전문 분야에서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다.
- ④ 내적 성숙과 함께 외적 품위도 갖추어야 한다.
- ⑤ 학식이 높은 사람은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나)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 대는 ㉢경적이
 저자바닥에 따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 이수익, 「방울소리」 -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정 소재에 주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다.
 - ④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41. <보기>는 (가)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1연에서 화자가 ‘길’로 나아가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럼, 2연부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발표해 볼까요?

- ① 2연에서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② 3연에서 돌담에 ‘쇠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 ③ 4연에서 길의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노력이 지속적인임을 의미합니다.
- ④ 5연에서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해 ‘눈물’지으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 ⑤ 6연, 7연에서 화자는 ‘풀 한 포기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2. ㉠~㉣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를 유년 시절의 시간과 공간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은 ㉠에 의해 연상된 것으로 화자의 소박하고 평화롭던 시절을 환기한다.
 - ③ ㉢은 ㉣과 대비되어 현대 문명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④ ㉣은 화자가 소중한 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
 - ⑤ ㉣은 ㉡을 통해 깨닫게 된 자연과 인간사의 부조화를 상징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엄마 인희는 50대의 가정주부이다. 남편은 월급 의사이고,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이며, 아들 정수는 삼수생이며 딸 연수는 직장인이다.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아온 그녀는 오줌소태 증세로 병원을 찾는데, 자궁암 말기라는 결과가 나온다. 수술 이후에도 병세가 악화되기만 하자, 엄마는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돌봐 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다가 이내 포기한다.

S# 51. 화장실 안

엄마, 할머니(변기 위에 앉아 있고)에게 세 속옷을 갈아입혀 주고 있다. 옷까지 마저 다 갈아입혀 주고.

엄마 (할머니 눈을 보며, 맘 아픈 걸 참고) 좋아요?

할머니

엄마 (쪼그려 앉으며) 개운하지?

할머니 (엄마의 눈을 보고 있다. 정신이 들어왔는지 엄마 맘을 알 것 같다.)

엄마 (눈물을 참고, 대견해하며)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할머니 손을 잡고, 차마 못 보고)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다시 할머니 눈을 보며)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친정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들 애비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 할 때, 애들두 없구, 외롭구 그럴 때도..... 어머니 내 옆에 있었는데..... 나 밋다고 해도 가끔 나한테 당신이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주곤 하셨는데..... 어머니, 이젠 기억 하나두 안 나지?

연수(E) 엄마?

할머니 (갑자기 버럭, 밖에 대고) 저리 가, 이년아!

엄마 (놀라,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드는가 싶어 눈물이 난다.) 어머니, 아까 미안해요. 내 맘 알죠?

할머니 (눈물이 나는 걸 참고)

엄마 (손을 잡고, 울며)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정신 드실 때 허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기다릴게. (손을 잡아 얼굴에 대며 울고) 아이고, 어머니.....

S# 67. 차 안

엄마 (장난처럼, 밝게) 정수야, 나 누구야?

정수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떠 눈물을 참고, 아이처럼) 엄마.

엄마 한 번만 더 불러 봐.

정수 (목이 메어) 엄.....마.

엄마 (눈가가 그렇해) 정수야, 너..... 다 잊어버려두,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두..... 니가 이 엄마 뺏속에서 나온 건 잊으면 안 돼.

정수 (힘들게 끄덕이고)

엄마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정수 손에 쥐어 주고) 이거, 니 마누라 줘.

S#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엄마,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멧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엄마 당신은..... 나 없이두 괜찮지? [C]
정철 (보면)
엄마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정철 (고개 돌리며) 싫어.
엄마 나..... 보고 싶을 거는 같애?
정철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언제? 어느 때?
정철다.
엄마 다 언제?
정철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엄마 (안타까운 맘. 보며)또?
정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엄마 또?
정철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엄마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깼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깼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킴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엄마 (눈물이 그렇해, 괜히 옷깃만 만지며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이 주룩 흐르고)
정철 (엄마를 안고, 눈물 흘리고)
엄마 (울며 웃으며)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 줘라.
정철 (엄마 얼굴을 손으로 안고, 입을 맞춰 주고) 두 사람, 다시 안고 울고.
정철 고마웠다.

S# 74.

- 1. 정원에서 돌 고르는 행복한 얼굴을 한 엄마와 정철.
- 2. 화장실에서 정철에게 등목을 해 주는 엄마.
- 3. 서로 밥을 먹여 주는 엄마와 정철.
- 4. 거실 소파에서 엄마, 정철 무릎에 누워 있다. 정철, 재미난 책을 읽어 주고, 엄마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고.

S# 76. 침실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엄마는 정철의 팔에 안겨 깊은 잠이 들어 있다. 정철은 물기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안고 있다.

정철 (엄마의 죽음을 느낀다, 엄마를 보지 않고) 여보.

엄마

정철 여보.....

엄마

정철 인희야.

그러나 엄마는 대답 없고,

정철, 이를 앙다물고 우는데, 눈물 뚝 떨어져 엄마의 뺨 위로 흐른다.

엄마, 너무도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고,

그런 두 사람 보여 주며 카메라 멀어진다.

-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명이 인물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② 소도구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극적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효과음을 삽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장면이 구성되고 있다.

44. 윗글을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장면에 맞는 촬영 방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엄마’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 안타까움 등의 복합적 심정이 담긴 표정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
- ② [B]는 애써 웃으려는 ‘엄마’와 슬픔을 참는 ‘정수’의 모습을 번갈아 카메라로 잡아 이별을 앞둔 모자간의 아픈 심리를 드러내면 좋겠어.
- ③ [C]는 ‘정철’에 대한 ‘엄마’의 바람을 내레이션으로 처리하여 ‘정철’이 ‘엄마’의 부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 ④ [D]는 가족들의 일상을 스쳐 지나가듯 삽입하여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정철’의 심정이 부각되도록 하면 좋겠어.
- ⑤ [E]는 ‘엄마’와 ‘정철’의 일상적 장면을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 이별을 맞는 두 사람의 애뜻함을 보여주면 좋겠어.

45. <보기>를 ‘S# 76’으로 바꿨을 때, 고려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침실 가득 눈부신 햇살이 밀려들었다. 아침이었다. 햇살은 마치 무슨 축복인 양 쏟아져 들어와 잠든 인희 씨의 하얀 얼굴을 비춰 주고 있었다. 정철은 잠에서 깨자마자 조용히 아내를 불러 보았다.

“여보.”

아내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에서는 이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인희야!”

정철은 오열하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서서히 몸을 굽혀 식어 버린 아내의 몸을 부서져라 껴안아 주었다. 그녀의 입술에 입 맞추며 그렇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었다. 어느 곁에 고인 슬픔인지, 깊이 잠든 인희 씨의 눈에도 차디찬 물기가 서려 있었다.

- ① ‘정철’의 심리와 조용하는 배경으로 교체한다.
- ② ‘정철’과 ‘인희’가 서로 화해하는 장면을 삽입한다.
- ③ 죽음을 맞는 ‘인희’의 고통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 ④ 삶에 미련을 갖는 ‘인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 ⑤ ‘인희’를 보내는 ‘정철’의 슬픔을 최대한 절제하여 보여준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 고향은 아니려노.

산평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뉘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정지용, 「고향」 -

(나)

[A] 이제 다시 것처럼 깨끗한 기도 만날 수 없으리

장독대 위 정한수 담긴 흰 대접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B] 어둠은 도둑걸음으로 졸졸졸 고퍼오다가
흰빛에 닿으면 화들짝 놀라 내뺄고는 하였다

어머니는 두 볼에 홍조 띠고
두 손 가지런히 모아
천지신명께 일구월심 가족의 소원 대신 빌었다
감응한 뒷산 나무들 자지러지게 잔가지를 흔들고

[C] 별꽃 서너 송이 고개 끄덕이며 더욱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런 새벽이면 어김없이 얼어붙은
비탈에 거푸 덮어져 무릎 까진 밤새 울음이 있었다
풀잎들은 잠에서 깨어 부스럭대고

바지런한 개울물 들을 깨우러 가고 있었다
촉촉하게 짜여진 어둠의 천 오래 입은 낡은 옷 되어
톡톡 실밥이 터질 때 야행에 지친 파리한 달빛
맨발로 걸어들어와 벌컥벌컥 마셨다

[D] 광석들 가로 지르는 서울행 기차 목선 기적이
달아오른 몸 담가오기도 하였고 밤나무의,
그 중 실한 가지가 손 뻗어오기도 했으나
정한수는 줄지 않았다

장독대. 내 생의 뒤뜰에 놓여 있는,
생활이 타서 갈증으로 목이 마를 때

[E] 흰빛 내밀어 권하시는,
내 사는 동안 내내 위안이고 지혜이신 어른이시여,

- 이재무, 「장독대」 -

31. (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한다.
- ②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한다.
- ③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 ④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32. ㉠, ㉡와 관련하여 (가)의 '구름'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를 이어주는 매개물이다.
- ② ㉠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 ③ ㉡의 부재를 화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 ④ ㉠과 ㉡의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이다.
- ⑤ ㉠과 ㉡의 괴리를 경험하게 된 화자의 내면세계를 나타낸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가정할 때, [A] ~ [E]에 고려되었을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 보 기 > —

어머니는 늘 정한수 한 사발을 장독대에 올리시고 기도하셨다. 흰 대접을 정갈하게 닦으시고 자식들을 향한 오롯하고 순전한 마음을 정한수에 담으셨다. 그럴 때면 아무도 당신을 범접할 수 없었다. 철없던 시절의 나는 왜 그렇게 어머니 걸을 벗어나려 했을까. 그러나 순간순간 삶에 지쳐 돌아올 때면, 정한수 정갈한 그대로인 채 어머니는 날 넉넉히 품어 주셨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제 그 자리엔 당신 걸을 묵묵히 지켜냈을 장독대만 놓여 있다.

- ① [A]: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 ② [B]: '흰 대접', '은은한 빛', '흰빛'을 통해 '정한수'의 속성을 드러내어 어머니 기도의 정결함을 부각한다.
- ③ [C]: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만물을 감응시킬 정도로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함을 강조한다.
- ④ [D]: 화자의 방황과 이탈 심리를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마르지 않은 '정한수'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포용력을 제시한다.
- ⑤ [E]: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독대'를 '어머니'와 동일시하며, 삶의 위안자로서의 '장독대'에 인격을 부여한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는 등 뒤의 작은 시위-그러나 오빠 나름대로는 필사적인-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첩으로 탁탁 얼굴을 두들기고 가늘고 등글게 눈썹을 그렸다.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번갈아 보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호기심과 찬탄으로 거울 속에서 점차 나팔꽃처럼 보양게 피어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시집을 때 해왔다는 등신대(等身大)의 거울은 이 방에서 유일하게 흠 없이 온전하고 훌륭한 물건이었다.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남루해져 가는 우리들의 가운데서 거울은, 어머니가 매일 닦는 닦도 있지만, 나날이 새롭게 번쩍이며 한구석에 버티고 있었다. 그 이물감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건지도 몰랐다.

거울 속에는 언제나 좁은 방 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꿉놀이를 하다가도, 게으르게 눈을 껌벅이며 잠에서 깨어나서도, 싸움질을 하다가도,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도 문득 눈을 들면 방의 한구석에 버티어 선 거울이 자신은 볼 수 없는 등까지도 환히 비추는 바람에,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낯설게 만나지는 자신에게 경원과 만구스러움을 느껴 옆으로 슬쩍 비켜서거나 남의 얼굴처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거울은 기울여 놓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작게도 크게도 길게도 짧게도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추었다. 언니와 나는 어머니가 없을 때면 끽끔대며 거울을 옮겨 놓고 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 놀이]를 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연극 놀이를 했는데 내용은 늘 똑같았다.

젠 멍청이니까 병자나 시켜. 작은오빠의 말에 따라 내가 힘없이 드러누우면 작은오빠는 의사, 언니는 천사가 되었다. 병자는 시중 가냘프게 신음을 하고,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먹으며, 눈을 감고 있다가 죽어서 천사와 함께 하늘에 오르는 것이 연극의 끝이었다. 천사는 할머니의 치마를 둘러쓰고 옷자락을 펄럭이며 머리 주위를 돌다가 내가 머리를 모로 떨어뜨리고 탁 숨을 끊으면 안아 올렸다. 그러고는 화를 냈다.

너무 똥보라서 날 수가 없구나.

천사를 따라 펄럭펄럭 날갯짓을 하며 방 안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연극이 막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대체로 정말 죽은 체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면 언니는 나를 마구 흔들며 짐짓 겁에 질린 소리로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노랑눈이 죽었니? 눈 떠봐. 정말 죽었니?

의사가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비집고 입김을 후후 불어넣으며 투덜대었다.

이 바보야, 일어나, 이제 끝났단 말야.

그러나 나는 천사와 함께 나는 것보다 죽은 채하고 누워 있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 그렇게 가만히 있노라면 의사는 계속 주사를 놓고 천사는 다리가 아플 때까지 주저앉을 수 없어 내 작은 계교로 연극은 언제까지나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입술을 꽃모양으로 뚜렷이 그리고 하얗게 분이 오른 얼굴을 다시금 분첩으로 탁탁 두드렸다.

오빠는 더 큰 소리로 책을 읽었다.

㉠ 햇 아 유 두잉? 아임 리던 어 북.

창 아래, 텃밭 가로 지나가던 사람 두엇이 고개를 빼어 안을 기웃거렸다.

어쩌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꼭 미국 사람 지껄이듯 하는군.

오빠는 번성기에 접어든, 거세고 뻑뻑한, 그러면서도 여성적인 목소리로 한껏 혀를 굴렀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시험 준비를 한다는 오빠는 저물 때까지 창가에 앉아서 영어책을 읽었다. 아예 책을 덮어 놓고 1과부터 외기도 했다. 우리의 좁은 방은 언제나 오빠의 책 읽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단조롭고 긴 소절의 노래였다. 오빠가 방에 없을 때조차 그 소리는 지루하게 되풀이해 울리고 있었다. ㉡ 햇 아 유 두잉? 핫츠 유어 프랜드 두잉?

중학교 2학년에서 학교를 중단한 오빠가 읽는 것은 피난집에 소중히 감춰 온 중2 교과서였다.

음에 야간 중학교가 생기자 어머니는 말했다. 온 식구가 한뼉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학교를 보내마.

그런데도 오빠는 세 해째 같은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보풀이 일어 녹녹하고 두껍게 부푼 책에 오빠는 딱딱한 마분지를 덧대어 뚜껍을 만들었다.

사람들 말대로 오빠는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었다.

갖고 놀아도 좋아.

어머니는 살짝 훑어 바른 빈 크림통을 내게 내밀고 마지막으로 입술 곁에 날카롭게 미인점을 찍은 뒤 일어나, 거울에 옷맵시를 비춰 보았다.

다녀오마.

어머니는 저고리 소매에 손수건을 살짝 찢러 넣고 꽃가지라도 꺾어 든 양 한들한들 걸어 나갔다.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오빠는 탁 책을 덮고 용트림을 하듯 아아 기지개를 켜며 웃웃을 벗어던졌다.

- 오정희, 「유년의 뜰」 -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독백체 진술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 사건을 대비해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④ 꿈과 현실의 혼재를 통해 현실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의 경과를 제시하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진행되는 사건 속에 존재하는 소리라면, ㉡은 '나'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 ② ㉠과 ㉡이 유사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빠'가 세 해째 같은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 ③ ㉠은 '어머니'가 분첩으로 얼굴을 두드리는 소리와 대응되며 긴장감이 감도는 방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은 '어머니'의 외출에 대한 '오빠'의 불만으로, '나'와 '어머니'에게 '작은 시위'로 인식되고 있다.
- ⑤ ㉡은 '되풀이해 울리'는 것으로, '나'에게는 '성공'에 대한 '오빠'의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할 때 ‘연극 놀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놀이의 세계와 일상적인 현실의 세계는 상호 작용한다. 놀이의 세계는 특정한 내적 규칙으로 구축된 새로운 세계로서, 놀이를 통해 인간은 고단한 현실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놀이는 여전히 현실의 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점에서 현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 ① 남루하고 ‘좁은 방’은 인물들에게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고단한 현실로 볼 수 있군.
- ② ‘병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천사’와 함께 날갯짓을 하며 방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이 놀이의 내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병자’가 ‘가냘프게 신음’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의 세계가 놀이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내’가 ‘날 수가 없’다는 것은 현실의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구축된 결과로 볼 수 있군.
- ⑤ ‘내’가 ‘작은 계교’를 부리는 것은 놀이를 연장함으로써 현실로의 복귀를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37~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벗나무 아래에 굽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속에 것부터 푸스푸스 타기 시작해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나 없는 날이면 그 연기가 낮게 드리워서 어느덧 뜰 안에 자욱해진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결엔지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귀한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음영과 윤택과 색채가 빈곤해지고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린, 꿈을 잃은 허전한 뜰 한 복판에 서서 꿈의 껍질인 낙엽을 태우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가난한 벌거숭이의 뜰은 벌써 꿈을 꾸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탓일까?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참으로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 벌써 추억에 잠기고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가을이다! 가을은 생활의 시절이다. 나는 화단의 뒷자리를 길게 파고, 다 타 버린 낙엽의 재를 - 죽어 버린 꿈의 시체를 - 땅 속 깊이 파묻고 염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 속의 소년같이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길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도 물론 이런 감각에서부터다. 호스로 목욕통에 물을 대는 것도 즐겁거니와 고생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조그만 아궁이로 나

무를 태우는 것도 기쁘다. 어두컴컴한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서 새빨갭게 피어오르는 불꽃을 어린아이의 감동을 가지고 바라 본다.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새빨갭게 타오르는 불은 그 무슨 신성하고 신령스런 물건 같다.

얼굴을 붉게 태우면서 긴장된 자세로 웅크리고 있는 내 팔은 흡사 그 귀중한 선물을 프로메테우스에게서 막 받았을 때의 그 태곳적 원시의 그것과 같을는지 모른다.

나는 새삼스럽게 마음속으로 불의 덕을 찬미하면서 신화 속 영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좀 있으면 목욕실에는 자욱하게 김이 오른다. 안개 깊은 바다의 복판에 잠겼다는 듯이 동화의 감정으로 마음을 장식하면서 목욕물 속에 전신을 깊숙이 잠글 때 바로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 지상 천국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늘 들어가는 집 안의 목욕실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사람은 물에서 나서 결국 물속에서 천국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 이효석, 「낙엽을 태우면서」 -

37. 윗글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비유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의문문으로 표현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⑤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사색을 전개하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 사소한 경험이 때로는 우리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다.

- ① 계절과 관련된 ㉠을 통해 ‘화려한 초록의 기억’이 사라져 버린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있다.
- ② ‘갓 볶아낸 커피의 냄새’, ‘잘 익은 개암의 냄새’ 등 후각적인 심상을 통해 ㉠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별안간 느끼게 된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 ④ ㉡은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길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⑤ ㉡은 ‘태곳적 원시’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싶은 원초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늙은 모친 병들어 누웠는데, 닭 한 마리, 약 한 첩도 봉양은 아니하고 잘 먹이지 아니하니, 냉돌방에 홀로 누워 서럽게 울며 하는 말이,

“너를 낳아 길러낼 제 애지중지 나의 마음 보옥같이 사랑하여 어루만져 하는 말이 ㉠ ‘은자동아 금자동아 무자자태 백옥동아 천지만물 일월동아 아국사랑 간간동아 하늘같이 어지러라 땅같이 너를거라. 금을 준들 너를 사라. 천상 인간 무가보(無價寶)는 너 하나뿐이로다.’ 이같이 사랑하여 너 하나를 길렀더니 천지간에 이런 공을 모르느냐. 옛날 왕상(王祥)이는 얼음 속에 잉어 낚아 부모 봉양 하였으니 그렇지는 못하여도 불효는 면하여라.”

불측한 고집이놈이 어미 말에 대답하되,

“진시황 같은 이도 만리장성 쌓아 두고 아방궁 높이 지어 삼천 궁녀 호위를 받으며 천년이나 사셨더니, 일분총(一墳塚)을 못 면하여 죽어 있고 백전백승 초패왕도 오강에 죽어 있고, 안연 같은 현학사도 삼십에 조사(早死)커든 오래 살아 무엇하리. 옛날에 인간칠십(人間七十) 고래희(古來稀)라 하였으니, 팔십 당년 우리 모친 오래 살아 쓸데없네. 오래 살수록 욕됨이 많으니 우리 모친 다투어서 단명하리. 도적이 같은 뭍쓸 놈도 천추에 유명커든 무슨 시비 말할손가.”

(중략)

“애고 애고 저놈 보소. 제가 나인 체하고 천연히 앉아 좋은 말로 그렇듯 말하네. 네가 옹가냐, 내가 옹가지.”

하고 서로 다툼 적에 김 별감 하는 말이,

“양 옹이 옹옹하니 이 옹 저 옹을 분별하지 못하겠네. 관가에 송사나 하여 보소.”

양 옹이 이 말을 듣고 서로 붙들고 관청에 들어가는데, 얼굴도 같고 의복도 같고 머리 가슴 팔뚝 다리까지 같았으니, 그동안의 진위를 누가 알리오.

실용이 먼저 아뢰되,

“민(民)이 옹당촌에서 대대로 살아왔사는데 천만의 외 알지 못하는 허인이 민의 행색같이 하고 들어와 민의 집을 제집이라 하고, 민의 가족을 제 가족이라 하니 세상에 이러한 흉한 일이 어디 또 있사오리까? 명명하신 성주는 이놈을 엄문하와 사리를 분명히 밝혀 주옵소서.”

허옹가 또 아뢰되,

“민이 아뢰 말씀을 저놈이 다하였사오니 민은 아뢰 말씀 없사오니 명백하신 성주는 통촉하시어 허실을 가려 주옵소서. 인제 죽사와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사또 분부하되,

“양 옹은 서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하고, 육방 하인이며 내빈 행객 모두 살피되 전혀 알 수 없는지라.

형방이 아뢰되,

“두 백성의 호적을 상고하여지이다.”

허허, 그 말을 옳다 하고 호적을 담당하는 관리를 불러 양 옹의 호적을 들을 제 실용이 나왔으며 아뢰되,

“민의 애비 이름은 옹송이웁고 조부는 만송이로소이다.”

사또 왈,

“그놈 호적은 옹송만송하다. 알 수 없으니 저 백성 아뢰라.”

(중략)

사또 듣기를 다하매 왈,

“그대가 참 옹 좌수라.”

하고 당상에 올려 앉히고 기생을 불러

“이 양반께 술 권하여라.”

일색 기생 술을 들고 권주가 화답하되,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한무제(漢武帝) 승로반(承露盤)에 이슬 받은 것이오니, 쓰다 다나 잡수시오.”

옹 좌수 흥을 내어 술잔을 받아 들고 하는 말이,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을 저 놈에게 빼앗기고 이런 일등 미색의 이렇듯 맛난 술을 못 먹을 뻔하였다. 그러나 성주 덕택에 흑백을 가려 주옵시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한번 민의 집에 나오시오. 막걸리 한잔 대접하오리다.”

“그는 염려 말게. 처치하여 줘세.”

실용을 불러 분부하되,

“네가 흉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 탈취하려 하니 네 죄상은 마땅히 법에 따라 귀양을 보낼 것이로되 가 벼이 처벌하니 바빠 어서 물리치라.”

대곤 삼십 도를 매우 쳐서 엄문죄목하되,

“인제도 옹가라 하겠느냐?”

실용이 생각하되 만일 옹가라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듯 하니,

“㉡ 예, 옹가 아니요.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전이 호령하여,

“관원을 시켜 저놈을 마을 밖으로 내쫓게 하리라.”

하니 별때 같은 군노 사령 일시에 달려들어 옹가 상투를 잡아 휘휘 돌려 내쫓으니 실용이 하릴없이 거리에서 빌어먹어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대성통곡 우는 말이,

“답답하다 내 일이야. 꿈이나 생시냐. 어찌하여야 옳단 말이냐. 뜻밖에 일어난 횡액이로다.”

무지한 고집이놈 인제는 개과하여 애통해 하는 말이,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거니와 당상 학발(堂上鶴髮) 우리 모친 다시 봉양하여지고. 어여쁜 우리 아내 월하(月下)의 인연 맺어 일월(日月)로 본증(本證) 삼고 천지로 맹세하여 백년 종사 하겠더니 독수공방 적막한데 임 없이 홀로 누워 진진 반측 잠 못 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 슬하의 어린 새끼 금옥같이 사랑하여 어를 제 ㉢ ‘섬마등등 내 사랑 후두둑 후두둑 얼마 아빠 눈에 암암’ 나 죽겠네. 아마도 꿈인가 생신가. 꿈이거든 깨이거라.”

허옹가 거동 보소. 승소하고 돌아올 제 의기양양하는 거동 그야말로 제법이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손춤 치며 노랫가락 좋을시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조롱하여 하는 말이,

“허허 흉악한 놈, 하마터면 우리 고운 마누라 빼앗길 뻔하였다.”

- 작자미상, 「옹고집전」 -

3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용은 조상대대로 살던 곳에서 살고 있다.
- ② 허옹은 참옹으로 인정받은 후 실용을 조롱하고 있다.
- ③ 사또는 외모를 근거로 허옹을 참옹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④ 실용은 송사에서 패한 후에 거리를 떠돌며 빌어먹고 있다.
- ⑤ 허옹은 자신을 참옹으로 인정해 준 성주의 공을 치켜세우고 있다.

4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특정 인물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에 비해 ㉡은 특정 인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달리 ㉠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 ㉡ 모두 특정한 대상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과 ㉡ 모두 자신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서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삶의 안정을 꾀한다. 그런데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결정적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 가족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삶이 황폐해진 개인은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 공동체로의 복귀를 소망하게 된다.

- ① 실용이 노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것은 지켜야 할 가족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실용이 모친의 말에 진시황 등을 들며 대답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실용이 송사에 저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가족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결정적 사건으로 볼 수 있군.
- ④ 실용이 마을에서 쫓겨난 후에 자신을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실용이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로의 복귀를 소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42. ㉠에 나타난 실용의 심리를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중지란(自中之亂)
- ② 과유불급(過猶不及)
-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 ④ 팔목상대(刮目相對)
- ⑤ 자포자기(自暴自棄)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운 섬돌 좋은 흙에 촘촘히 심어 내니
 봄 삼월 지난 뒤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두려워하네.
 정숙한 기상을 나뭇에 뉘 벗할까.
 옥난간 기나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창문을 반쯤 열고 아이를 불러 시켜,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상자 안에 가득 담고,
 바느질을 끝낸 후에 안체에 밤이 들어
 환한 촛불 아래 가깝게 다가앉아
 ㉠ 흰 백반을 갈아 바수어 옥 같은 손 가운데 곱게 곱게 개어 내니
 과사국(波斯國)* 임금의 산호 궁전을 해쳐 놓은 듯,
 궁궐 붉은 도마뱀을 절구에 뺨아 놓은 듯,
 섬섬옥수 열 손가락을 수실로 감아 내니,
 ㉡ 중이 위로 붉은 꽃물 미미하게 스미는 듯
미인의 얼은 뺨에 붉은 안개 끼이는 듯
 ㉢ 단단히 묶은 모양 비단에 옥글씨로 쓴 편지를 왕모(王母)*
에게 부치는 듯.
 봄잠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 놓고,
 거울을 대하여 눈썹을 그리려니
 ㉣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
손으로 잡으려 하니 어지럽게 흩어지고
 입으로 불러 하니 안개가 섞여 가리는구나.
 친구를 서로 불러 즐겁게 자랑하고,
 ㉤ 쪽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 앞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던 말, 이 아니 옴
겠는가?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의홍상 한 여인이 표현히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謝禮)하는 듯 하직하는 듯.
 어렴풋이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 듯.
 창문을 급히 열고 꽃수풀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담아 꽃에게 말 붙이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해마다 꽃빛은 의구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동산의 도리화는 잠깐의 봄을 자랑 마소.
 이십 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뉘라서 슬퍼할까.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몸 뿐이로세.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이리하여 지었구나.
 - 작자미상, 「봉선화가」 -

* 과사국(波斯國) : 페르시아.
 * 왕모(王母) : 신선이 산다는 곤륜산의 선녀인 서왕모.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상황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감정을 절제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객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며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정을 제시하여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여 붉은 빛이 스며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미화된 표현을 통해 봉선화 물들이기에 기울인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역동적인 묘사를 통해 봉선화의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손톱에 물든 봉선화 물의 붉은 빛을 강조하고 있다.

4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적 화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봉선화의 '향기 없'는 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② 시적 화자는 '녹의홍상 한 여인'이 등장하는 꿈을 통해 봉선화의 낙화를 예감하고 있군.
- ③ 시적 화자는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음을 근거로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라고 하며 봉선화를 위로하고 있군.
- ④ 시적 화자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떨어지는 '동산의 도리화'에서 무상감을 느끼고 이를 슬퍼하고 있군.
- ⑤ 시적 화자는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몸 뿐이로세'라고 말함으로써 봉선화에 대한 각별한 정을 드러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어 영역

국어 B형 정답

1	①	2	⑤	3	①	4	⑤	5	①
6	①	7	②	8	③	9	②	10	④
11	⑤	12	⑤	13	④	14	②	15	③
16	③	17	①	18	④	19	⑤	20	③
21	①	22	②	23	⑤	24	④	25	⑤
26	④	27	②	28	③	29	⑤	30	⑤
31	②	32	③	33	⑤	34	③	35	①
36	⑤	37	④	38	③	39	④	40	④
41	④	42	③	43	⑤	44	④	45	③

B형 정답

1	④	2	⑤	3	④	4	①	5	④
6	⑤	7	④	8	④	9	②	10	④
11	③	12	②	13	③	14	①	15	②
16	⑤	17	①	18	③	19	①	20	⑤
21	③	22	②	23	④	24	④	25	④
26	④	27	②	28	①	29	④	30	②
31	②	32	⑤	33	③	34	①	35	③
36	③	37	⑤	38	②	39	②	40	②
41	①	42	⑤	43	⑤	44	③	45	⑤

• 1교시 국어 영역 •

• 국어 영역 •

[B 형]

국어 B형 정답

1	②	2	①	3	①	4	②	5	⑤
6	⑤	7	④	8	③	9	④	10	⑤
11	④	12	③	13	③	14	④	15	④
16	②	17	②	18	②	19	⑤	20	③
21	①	22	⑤	23	②	24	⑤	25	④
26	⑤	27	④	28	①	29	⑤	30	②
31	③	32	⑤	33	③	34	④	35	①
36	①	37	④	38	③	39	①	40	①
41	①	42	②	43	①	44	④	45	⑤

1	③	2	②	3	④	4	④	5	②
6	⑤	7	⑤	8	④	9	①	10	⑤
11	⑤	12	①	13	②	14	③	15	③
16	②	17	②	18	③	19	①	20	⑤
21	③	22	②	23	①	24	①	25	⑤
26	①	27	②	28	④	29	③	30	④
31	④	32	⑤	33	①	34	②	35	⑤
36	④	37	⑤	38	⑤	39	③	40	⑤
41	②	42	⑤	43	③	44	④	45	④